

LPG 자동차 인기 쾌속 질주



기아차는 LPG 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에 발맞춰 다양한 판촉 이벤트를 여는 등 본격적인 LPG 모델 차량 판매에 들어갔다. <기아차 제공>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 중 3곳 LPG차량 출시·판매 시동
기아차 'K5' 'K7' LPG 모델 판매 할인 행사 초반 시선잡기
현대차 일반인용 쏘나타 판매...다음달 그랜저·아반떼 출시

지와 함께 총 20만원 상당 혜택을 주는 'LPI 더블 지원 이벤트'를 한다.

신차 구매시 10만원 할인과 SK LPG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 시 1회 최대 3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하루 1차례 3만원 이상 충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총 할인액 한도도 10만원으로 정했다. 또 LPG 차량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추첨을 통해 202명에게 노트북·스마트폰 등을 주는 '기아자동차 LPG 행복 충전 경품 이벤트'도 한다.

일반판매 LPG 차량 가격은 ▲K5 2.0 LPI 프레스티지 2326만2375원, 노블레스 2571만9300원, 노블레스 스페셜 2801만9400원, ▲K7 3.0 LPI 럭셔리 2828만775원, 프레스티지 3413만5575원(기본 사양 기준)이다. 렌터카용 모델과 비교하면 개별소비세 등이 추가돼 가격이 약 100만~150만원 높다.

현대자동차는 앞서 16일 일반인용 쏘나타 LPG 모델 판매를 시작했다.

신형 쏘나타 LPG 모델에는 스마트스트림 L2.0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으며, 가격은 스마트 2457만원, 모던 2680만원, 프리미엄 2959만원, 인스퍼레이션 3294만원이다.

현대차는 다음달 그랜저와 아반떼도 일반인용 LPG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LPG차량을 출시한 르노삼성자동차는 한 달 앞서 달리고 있다. 'SM6 2.0 LPe'와 'SM7 2.0 LPe'를 선보인 르노삼성은 자사가 개발한 '도넛 탱크' 기술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르노삼성의 지난달 LPG차 판매량은 지난 2월 대비 46.9% 증가했다. SM6와 SM7은 일반 판매가 시작된 뒤 4월의 영업 기간 동안 각각 530대, 295대가 팔렸다. 이는 지난 2월 실적 대비 각각 46.4%, 41.4% 늘어난 수치다. 르노삼성은 5인승 LPG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LPG 자동차 일반판매 허용 이후 국내 1호 일반판매 모델로 르노삼성차 SM6 2.0 LPe가 이름을 올렸다. <르노삼성차 제공>

LPG차의 인기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업체 케이카(K Car)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후 한 주간 178대의 중고 LPG차량이 판매됐다. 지난 한 달간 주 평균 LPG차 판매 대수는 51.6대로 LPG차 일반 판매 개정이 시행되기 전 주보다 약 3배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다. LPG차는 운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는 단점이 지적되지만, 경유차 대

비 5~10% 정도이며,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에 그친다는 점에서 환경적 혜택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LPG차의 연료가격도 디젤이나 가솔린의 50~60% 수준이다. 다만, 디젤·가솔린 차 대비 연비가 떨어지고, 아직은 LPG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벤츠 PHEV 'C 350e' 출시...전기차 모드로 15km 주행

더클래스 효성 'EQ 큐브' 설치 25일까지 벤츠 전기차 전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C-클래스 세단 기반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더 뉴 C 350e'를 지난 19일 국내 공식 출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근 C-클래스 세단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더 뉴 C 350e'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C 350e는 2.0 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했다. 엔진의 제원은 최고출력 211마력에 최대토크는 35.7kg·m이며, 전기 모터는 최고출력 82마력에 최대토크 34.7kg·m이다. 주행 방식은 하이브리드 모드와 순수 전기차 모드, 엔진 모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6.4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순수 전기차 모드로 운행하면 최대 15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시속 130km에 이른다.

C 350e는 소켓식 배터리 충전 옵션을 제공하며 충전 시간은 공영충전기로는 최대 2시간30분, 가정용 220V 콘센트는 최대 4시간 걸린다. 또 전기차 모드에서 운전자에게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도록 신호를 주거나 엔진 작동이 필요할 경우를 진동으로 알려주는 '햅틱 가속페달' 기능을 갖췄다. 아울러 C 350e에는 사각지대 경보와 능

동행 차선유지보조, 평행·직각 자동주차 등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적용됐다. C 350e의 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한 기준으로 6400만원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더클래스 효성은 오는 25일까지 서울시 송파

구 올림픽플라자 상가 광장에 'EQ 큐브'를 설치하고 벤츠 전기차를 전시한다. 시승을 원하는 고객은 전시 현장에서 신청받아 행사장 인근 도로에서 직접 운행해볼 수 있다. 더클래스 효성은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수입차 시장을 리딩하고 있

다. 또 국내 스포츠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부터 문화와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클래스 조이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건전한 여가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제네시스 전기차 콘셉트카 '민트' 공개...“씨티카 지향”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전기차 콘셉트카인 '민트(Mint) 콘셉트'를 최근 '2019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민트 콘셉트'는 현대차의 한국과 유럽, 북미 디자인센터 간 협업으로 만든 글로벌 프로젝트로, 350kW급 출력의 급속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21km에 이른다.

'민트 콘셉트'는 도시의 일상생활에 맞춰 기동성과 주행성 등을 만족시키는 '씨티카'를 지향하고 있다.

차체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동적인 우아함'을 강조했으며 고유인 '지-매트릭스' 패턴을 적용했다. 또 통상 트렁크 문을 차량 뒤쪽에 설치하는 대신 민트 콘셉트는 차량 측면에 문을 설치해 차량 내 수납공간 접근성을 높였다. 실내 공간은 빈 공간을 품는 한국의 전통적 디자인과 현대적인 유럽의 가구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스티어링 휠은 원형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고, 휠 주변에는 사용자용 인터페이스 정보 화면들을 배치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분양지역**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